



김동기 하이랜드 회장, 희망나눔 성금 3000만원 기탁

〔주〕하이랜드 김동기 회장이 최근 순창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하이랜드(주)·(주)하이누리 대표이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특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광주아너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교대, 전주부설초 대상 한복체험 프로그램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1~23일 3일간 전주부설초등학교 5학년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한복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한복이음교육'을 이수했던 전주교대 예비교사들이 보조강사로 참여해 교육실습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에 한복의 역사, 구성, 종류 등에 대해 배우고, 형형색색의 평복과 궁중복을 직접 입어보며 '입는 순서', '고름 매기', '한복 정리하기' 등의 실습과 함께 '한복 예절'을 익혀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전주교육대학교 미술실과관 의생활교육실습실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가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학생성장중심 리더특강 진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3일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똑똑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학생성장중심 리더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예비교사로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 판별 능력과 교육적 통찰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한광 전 전주MBC 사장을 초청해 △가짜뉴스, 공동체 질서 위협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과정 △뉴스 소비자의 각성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일상화의 영향이라는 소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장은성 기자



김제지시협 장애인분과,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김제지시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성주, 권영세) 장애인분과는 지난 23일 김제경찰서와 협력해 덕안고·덕암정 보고 인근 편의점 공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편리함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청소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김제경찰서와 장애인분과 위원들이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안내, △장애 예방 메시지 전달, △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배포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스탠퍼드대학 선정 '세계 상위 2% 연구자'

전북대 조재혁 교수, 실생활 문제 해결형 AI 연구 성과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 받아

전북대학교 조재혁 교수(소프트웨어공학과·인공지능 분야)가 세계적인 연구 영향력을 인정받아 스탠퍼드대학교와 엘스비어(Elsevier)가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명단은 SCIE와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표준화 인용지표와 학술 영향력(c-score)을 평가해 도출한 것으로, 세계 학계에서 권위 있는 지표다. 전 세계 22개 학문 분야와 174개 세부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2025년판 'Updated science-wide author databases of standardized citation indicators' 결과에 따라 조교수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체 연구 경력뿐만 아니라 2024년 학술 영향력까지 반영됐다는 점에서 조 교수의 최근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감열병 대응 시스템 개발과 예측 모델링, 환경 유해인자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AI 모델, 도메인 특화형 AI 챗봇, 지능형 에이전트 개발 등 실생활

문제 해결형 AI 연구에 영향력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주요 국책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지난 9월 26일 열린 제11회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AI 시대, 전북이 답하다'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맡아 AI와 관련된 지역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9월 24일에는 태양광·반도체 등을 연구·생산하는 기업 OCI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AI 기술의 산업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10월 15일에는 JTV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재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신 인공지능 동향(State Of The Art AI Trends)'을 소개하는 공개 강연을 하는 등 연구성과의 사회 확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재혁 교수는 "AI는 더 이상 특정 연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산업 전반과 공공 영역, 지역 혁신 전략까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라며 "연구 성과가 지역과 국가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40년 염원 이뤘다… 전주대 축구부, 전국체전 첫 우승컵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산 동명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자 대학부 결승에서 용인대학교를 2:1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1985년 창단한 전주대학교 축구부는 춘계·추계대학축구연맹전, U리그 왕중왕전, 1,2학년 대학축구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거두며 명문 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초 제6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전국체전 금메달로 '2025년 대학축구 2관왕'에 오르며 전통과 자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과거 전국체전에서 6차례 준우승에 머무르며 유독 인연이 없던 전주대는 이번 우승으로 과거 전국체전에서의 아쉬움을 단번에 털어낸 값진 성과다. 전주대는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전개로 흐름을 주도했다. 전반 7분, 장현수 선수가 상대 수비 혼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왼발로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전반 35분, 용인대의 역습으로 실점하며 1대 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전주대는 한층 조직적인 플레이로 주도권을 되찾았다. 후반 15분, 최지웅 선수가 오른쪽 측면 돌파 후 올라온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후 전주대는 탄탄한 수비 라인과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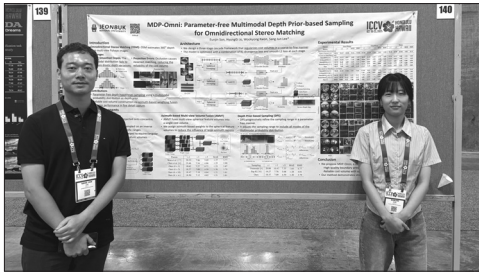


인대의 거센 추격을 끝까지 막아내며 승리를 지켜냈다. 정진혁 축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 그동안 수차례 준우승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진정한 팀워크와 집중력을 보여줬다"며 "금메달은 선수단 전체가 하나로 만들어진 값진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순태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스포츠 성취를 넘어 도전과 열정의 힘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였다"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 정상에 올라선 결실이 우리 지역과 대학 스포츠에 많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이상준 교수팀, 인공지능 최고 학회 ICCV서 연구 성과 '주목'

이동로봇 환경 인식 정확도 혁신 기술 관련 논문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이상준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및 컴퓨터비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ICCV 2025)'에서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세계 학계의 주목받았다. 이에 따르면 ICCV는 지난 19~23일까지(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비전 학술대회로, 전 세계 주요 대학과 글로벌 기업 연구진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이상준 교수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파라미터 없이 예측거리 범위를 유효적으로 조정하는 깊이 기반 샘플링 기법'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다중 어안카메라 영상을 활용해 기존 방식보다 오매창을 줄이고, 거리 인식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로 평가받았다. 특히, 별도의 추가 파라미터 없이 예측 거리 범위를 자동 조정하는 깊이 기반 샘플링 기술과, 시야각 정보를 이용해 다중 시점 영상을 정밀하게 융합하는 새로운 비전 모듈 구조를 제안, 현장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연구를 주도한 이상준 교수(전북RICE지능화학신연구센터 부센터장)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기술이 이동로봇의 환경 인식과 자율주행 분야의 실질적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준 교수가 부센터장으로 참여 중인 전북RICE지능화학신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



가원(IIITP),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가 공동 지원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제 금구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미향)가 지난 24일, 관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 '안전손잡이 설치 및 겨울철 대비 안전시설 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복지기동대는 욕실, 출입문, 계단 등 낙상 위험이 높은 주거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보일러 작동 여부 및 누수 여부, 전기선 노후 상태, 가스차단기 등을 점검하며 간단한 수리도 병행해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이날 활동에는 복지기동대원 8명과 면장 등 직원 4명이 참여했으며, 총 7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전국체전서 '금빛 살바'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정읍 씨름의 위상을 전국에 떨쳤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해 개인전 금메달 1개·동메달 1개와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 씨름 종목에는 전국 68개 팀 4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단풍미인씨름단은 남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김찬영 선수가 장사급(+140kg) 1위를, 김효겸 선수가 용사급(-95kg)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팀의 에이스인 김찬영 선수는 결승에 오르기까지 타팀의 장사 출신 강호들을 차례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해 정읍 씨름의 자력을 과시했다. 씨름단 박희연 감독은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뿌듯하다"며 "매 훈련마다 열심히 임해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부안군 백산다목적체육센터에서 도내 14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협회장 이명재)가 주최하고, 부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노영웅)이 주관했으며,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행사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호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도민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일상 속 피로를 해소하며, 복지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 도 관계자 및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복지관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2인 3각 공굴리기, 고갈론 축구 등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화합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김천시 재향군인회 우호 교류 행사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교류 행사가 정읍에서 열렸다. 정읍시는 지난 23일 김천시 재향군인회 회원 40여 명이 정읍을 방문해 지역 재향군인회(회장 이병행)와 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간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보훈·안보단체로서의 역할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두 단체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며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보건소, 구조·응급처치 교육 진행

남원시보건소는 시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3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와 협력, 올해 계획된 4차례 정기교육 가운데 세 번째 과정이며, 대상은 보건기관 종사자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책임자, 시민 등이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가이드라인 이해 △심정지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용 모형과 AED 활용한 실습이 포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익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일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신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